

KIA 타이거즈 뱀띠 선수들 올해는 꼭 우승 '용꿈' 꾀다

2013년 계사(癸巳)년이 밝았다. 2012시즌 4강 탈락의 쓴 잔을 마신 KIA는 지난 가을 강도 높은 마무리 훈련을 하며 새해를 준비했다. '명가재건'을 외치며 맞은 2013년, 뱀띠 선수들이 타이거즈의 중심에 선다. 유동훈·서재

웅·김상훈(이상 77년생)이 고참으로 팀을 이끌고, 프로 2년차인 박지훈·윤완주·황정립(이상 89년생)이 패기를 더한다. 6번째 시즌을 앞둔 김선빈(89년생)도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프로야구 최고의 유격수를 꿈꾸고 있다.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상훈 = 주장으로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내 성적도 중요하지만 팀이 중요하다. 다시 또 주장역할을 맡은 만큼 팀 성적이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 지난 시즌 팀의 연결고리가 매끄럽지 못했는데 그 역할에 주력해 틈나 바퀴가 굴러가듯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마무리 캠프를 통해 희망을 보았다. 선수들 의지들도 달라졌고 전력 면에서는 다른 팀에 뒤지지 않는다. 선수들이 아프지 않고 분위기가 잘 이끌어지면 좋은 성적 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몇 년 간 계속 몸이 아파서 스트레스 받고 고전했는데 컨디션도 좋고 희망도 생기고 자신감도 얻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시즌을 보내겠다.



을 앞두고 WBC라는 큰 무대에도 나가야 한다. 대표팀에 뽑힌 것은 큰 영광이다. 몸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데 갑자기 뱀띠로서 걱정도 되지만 차근차근 대회에 맞춰서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수준이 올라온 선수들이 대표팀에 오기 때문에 선배로서 후배를 격려하면서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팀 성적을 위해서도 고참 역할에 충실하겠다. (김)주찬이도 새로 왔고 팀 분위기도 좋다. 올 시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 가는 것 같아서 어렵지만 막상 또 새해가 시작되니까 빨리 마운드에 서고 싶다. 2년차 징크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안 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니 까 이를 빨리 헤쳐나가고 밀쳐낼 수 있도록 스프링 캠프에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 뱀띠해인만큼 더 각오를 굳게 하고 시즌을 맞이하겠다. 뱀띠 동기를 모두 주목받는 선수들로 팀 우승에 함께 하고 싶다.

“뱀띠처럼 사악하게”

▲윤완주 = 2013시즌 뱀띠처럼 사악하게 준비하겠다. 지난 시즌에는 다소 실수가 많았다. 마무리 캠프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는 생각으로 캐치볼부터 기본적인 부분의 훈련을 충실히 했다. 훈련이 힘들기도 했지만 수비 같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주변에서 많이 좋았다고 하고 내 자신도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작년보다 더 오래 1군에서 뛰면서 대수비로 좋은 활약을 하고 싶다. 팀에서 원하는, 그에 맞는 선수로 활약을 하며 내 임지를 넓히고 싶다. 운동선수는 안 다치는 게 최고다. 뱀띠 동기를 모두 부상 없이 끝까지 시즌을 가고 싶다.



“태극마크 욕심 나요”

“700닝 책임져야죠”

▲유동훈 = 야구를 잘하는 게 올 시즌 각오다. 게임을 많이 나가고 많은 이닝을 던지면 성적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시즌 밸런스가 좋지 않아서 힘들었다.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 몸이 달랐다. 봄에 많이 던져야 여름을 이겨나가는 데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시즌 초반, 시범경기에 맞춰서 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2월 기술운동 대신 웨이트와 러닝에 주력하면서 시즌을 준비했다. 많은 이닝 소화하겠다. 중간에서 뛰는 만큼 중간 투수를 입장에서 생각하고 격려해주면서 팀 분위기를 이끌어 가겠다. 심리적으로 힘든 자리가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 경험을 얘기해주면서 후배를 잘 이끌고 4강 그리고 우승에 도전하겠다.



▲김선빈 = 벌써 프로에서 6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다. 2013시즌에는 무조건 우승을 하고 싶다. 2009년 한국시리즈에서 뛰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팀 우승의 주역이 되고 싶다. 지난해 후반기에 슬럼프가 오면서 어렵게 3할을 기록하지 못했다. 3할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다. 지난 시즌 수비에서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모습이었는 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마무리 캠프에서 열심히 준비했다. 공·수에서 좋은 활약을 하면서 팀 우승을 이끌고 이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2014년 아시아게임에서는 태극마크를 탈 수 있도록 하겠다.



“나를 더 보여주마”

▲황정립 = 팀 우승이 우선 목표다. 개인적으로는 2할5푼 이상의 타율과 함께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지난해 늦게라도 1군에 올라와서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 하지만 훈련 그것 하나만 보여준 것 같아서 아쉽다. 느린 발이 아니다. 도루도 과감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타격도 정교하게 하지 못했다. 마무리 캠프가 많이 힘들었는데 뭔가 얻어온 기분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완성단계에 이른 것 같이 만족스럽다. 1부상없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게 목표다. 일단 20개의 홈드를 목표로 하겠다. 쉬는 날이 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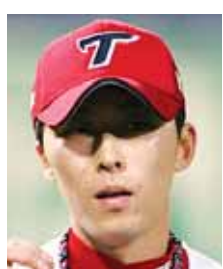


“2년차 징크스는 없다”

“10승, 내 내 운명”

▲서재웅 = 지난 시즌에도 어렵게 10승을 이루지 못했다. 올 시즌 개인적인 목표는 무조건 10승이다. 시즌

▲박지훈 = 지난해 좋은 경험을 했다. 전반기 최고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후반기 너무 부진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올 시즌에는 부상없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게 목표다. 일단 20개의 홈드를 목표로 하겠다. 쉬는 날이 빨



동화 속 나라로 신나는 점프 오스트리아의 볼프강 로이츠가 1일 독일 오버스트도르프에서 열린 포-힐스 스키 점프대회 예선에서 점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동열 리틀야구장 건립하겠다”

나 훈 광주시야구협회 신임 회장

“선동열 리틀야구장 건립, 학교 팀 창단 등 지역 야구 발전을 위해 마지막 힘을 쏟겠습니다.”
광주시야구협회를 이끌어 나갈 나훈(66·사진) 신임 회장이 '야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 청사진을 밝혔다. 나훈 송정농협조합장은 최근 광주시야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제 10대 광주시야구협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1998년 3대 회장을 역임했던 나 회장의 14년 만의 야구계 복귀다. 선동열 리틀 구장 건립, 초·중·고 팀 창단, 야구 기록 감습회 확대가 새로 꾸려진 야구협회의 주력 사업이다. 나 회장은 “선동열이라는 대스타가 나온 곳이지만 이를 기념할 구장이 없다. 리틀야구장을 건립해 아시아 리틀 선수권 대회 등을 추진하겠다.

지역 야구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일고 투수 출신으로 송정중 감독을 지낸 나 회장은 KIA 선동열 감독의 대선배이자 야구 스승이다. 부친과의 인연으로 초등학교 4학년인 선 감독의 가정 교사를 맡아 야구를 알려준 인물이다. 박인화 광주시교육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최해식 전 KIA 코치 등과 학교재단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고등학교 팀 창단 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나 회장은 “초·중·고로 선수들이 연계해서 진학을 해야 하는데 광주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팀 수가 부족하다. 야구 고장으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팀 창설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프로야구 개막에 앞서 기록감습회를 열 계획이다. 기록을 통해 야구팬들이 더 많은 야구의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전문적인 야구 기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야구협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심판부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장진범 전 KBO 심판위원을 심판이사로 영입하는 등 야마야구 환경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A 다저스 류현진 “10승 이상 하겠다”

‘괴물’ 투수 류현진(26·LA 다저스)의 미국프로야구 도전이 2013년 새해와 함께 막을 올렸다. 류현진의 빅리그 연착륙 여부는 2013년 한국 야구의 최대 화제다. 한국프로야구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류현진이 은퇴한 박찬호(40)의 뒤를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코리아 열풍’을 이어갈지 많은 야구팬이 그의 인팔을 주목하고 있다. 이적료 2573만737달러(약 280억원)를 원 소속구단 한화 이글스에 안기고 계약 기간 6년, 연봉 총액 3600만달러(390억원)에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은 올해 팀의 운명을 좌우할 투수로 미국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류현진은 1차 목표로 “두자릿수 승리, 2점대 평균자책점”이라고 제시한 뒤 “미국에서도 알아줄 만한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3만원으로 떠나는 제주도여행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서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3만원으로 떠나세요.

광주↔목포 서틀버스 + 씨스타크루즈호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편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씨월드 고속훼리(주) 우수대리점. 제주배닷컴 www.jeube.com 1644-2261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139,000원**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용두암 용연, 노을언덕 무인카페
2일자 오설록, 생각하는 정원, 서커스월드, (현지직불) 서커스포유람선, 롯데호텔정원, 올레길
3일자 선녀와나무꾼, (현지직불) 몽골리안마상쇼 or 매직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 서틀버스,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호텔(5-6인실), 일정표내 입장료, 식사(중식2회,조식2회)
불포함사항: 가이드 팁, 개인비용, 현지직불관광, 자유석식
금, 토 출발시 20,000원 추가 / 2인실 이용시 30,000원 추가

겨울여행의 메카 강원도로 떠나요

1월 출발일 1월달 매주 토요일/일요일 5,6,12,13,19,20,26,27일

평창 휘닉스파크스키 ₩95,000원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에서 즐기는 스키 포함사항:왕복28인승버스, 리프트이용권, 렌탈50%할인권

백두대간 선지령 풍차길 눈꽃트래킹 ₩45,000원
대관령기상대 - 양떼목장 - 통진중개소 - 동해바다조망 - 정상(1,157m) - 하산 4-5시간 트래킹

강릉 안목항 커피거리 + 커피박물관 ₩60,000원
대한민국 최초 커피박물관 관람 및 체험관광 안목항 커피거리 자유시간
협찬: 사방관방부어